

클라우드를 활용했을때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더 효율적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있음, 개인정보가 민감하고 데이터센터의 위치가 중요한 산업에서도 클라우드가 요즘 활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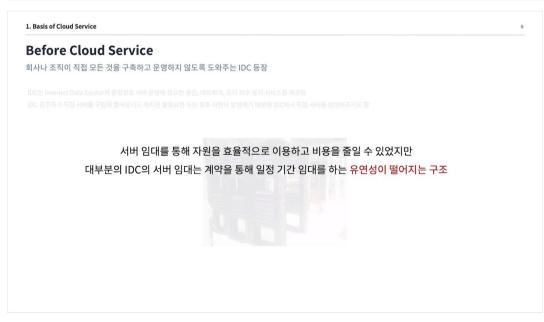


이전에는 모든 물리적인 자원을 준비해야 했고 환경이나 OS설치, 인터넷 연결 등 모든 작업을 회사에서 직접 수행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있도록 IDC가 등장했다. 하지만 IDC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약을하고 서버를 사서 직접 들어가야 했다. 결국 불필요한 유지비용이 발생할 수있다.





유동적으로 서버를 관리하고 싶은 사용자들이 증가하면서 해당 고객의 말 처럼 온디맨드 수요가 증가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 - 사전에 계약할 필요없이 바로 서비스를 이용가능, 또한 소프트웨어 설치를 그때그때 계속 하지 않아도 가상화기술들을 통해서 빠르게 소프트웨어 설치, 배포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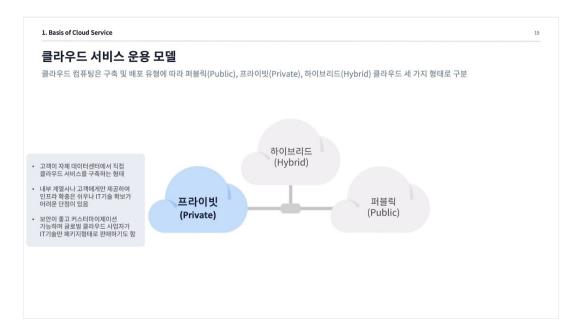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용하는 모델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하이브리드 방식은 퍼블릭와 프라이빗 두개를 합친 방식이다, 퍼블릭은 제약이없는 클라우드 서비스이고(ex) 우리가 AWS 접근해서 사용하는것) 프라이빗은 이전에 사용했던 직접 구축해서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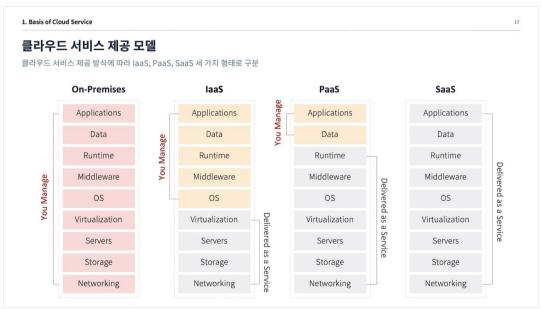


보안과 customization이 중요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프라이빗 서비스로 운용한다



최근 회사들은 하이브리드 방식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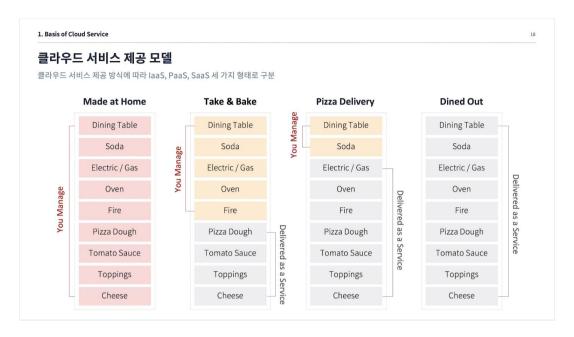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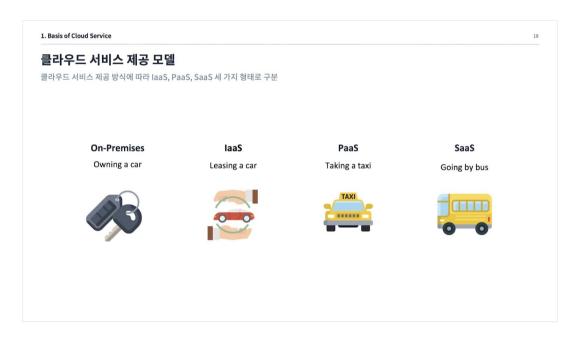
On-Premises: 내가 모든 서버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application까지 모두 구축하는 것을 말함 laaS: 인프라는 서비스 제공자 것을 사용하고 나머지 OS나 미들웨어 APP은 직접 구축하여 마련함 PaaS: 데이터, APP만 직접 구축하며 나머지 부분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

SaaS: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의 약자로 모든 전체적인 것을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함, 대표적인 SaaS의 예로는 이메일이 있다, 이메일 에서 제공하는 메일을 보내는 방식이나 이런것을 우리가 직접 구현하지 않고도 우리는 이메일의 모든기능을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사용한다.

이것을 식당에 비유하기도 한다고 한다.



왼쪽부터 내가 직접다 일일이 만들어 피자를 먹는 방식에서 -> 나는 레스토랑에 가서 주문만하면 제공자가 알아서 피자를 만들어 나는 먹기한 하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는대 도움이 될수있겠다.



On-Premises: 차 유지보수, 보험비, 구매, 운전하여 가고싶은 목적지를 설정하는것 모두 사용자가 관리, 유지보수의 어려움

PaaS: 택시업소가 차를 제공해주며 나는 차를 운전만 하면 된다. 가고싶은 목적지(APP개발)은 내가 설정할 수있음.

SaaS: 정해진 노선이 정해져있고 버스에 타기만 하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모든서비스가 제공된다. 우리는 그 서비스에 따라야 하며 우리가 노선(목적지, APP)을 변경할 수없다. 거기서 제안하는 기능만 사용할 수있음. 1. Basis of Cloud Service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

Cloud Service Provider 중 해외에는 AWS, GCP, Azure가 국내에는 NCP, KT Cloud, NHN Cloud 등의 업체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중











INI-INI Cloud

